

책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비결

고미숙 | 문학평론가

연암 박지원의 친구 가운데 유련이라는 장서가가 있었다. 장서가란 책에 대한 사랑이 워낙 지극한 법이어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오래 보존하려 들게 마련이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정교한 도장을 책마다 찍어 자신의 소유임을 후세까지 알리고자 했다. 그것을 지켜보던 연암은 이렇게 충고한다. “그대가 고서를 많이 쌓아 두고 절대로 남에게는 빌려주지 않으니, 어찌 그다지도 딱하십니까?(...) 대저 천하의 물건은 대대로 전할 수 없게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오히려 몇 질의 책을 대대로 지켜내겠다고 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책은 정해진 주인이 없고, 선을 즐거워하고 배움을 좋아하는 자가 이를 소유할 뿐입니다.”

자본가들의 유산 상속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에 반해 책에 대한 소유욕은 비교적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물론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아름다운 건 틀림없지만 그것을 독점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 삶과 삶의 흐름을 막는 악업이 될 따름이다. 우리 학계에는 중요한 자료를 움켜쥐고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그것으로 자신의 학문적 권위를 지탱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다. 그 어리석음과 탐욕은 자본가들의 그것과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다.

내가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수유연구실과 연구공간 ‘너머’는 공부를 삶의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른바 ‘지식공동체’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책만은 사고 본다는 ‘소장학자’ (책을 열광적으로 소장하는 연구자라는 뜻)들이 대부분이다. 거기다 구하기 어려운 책은 고서점을 뒤져 제본을 뜨고 마는 ‘제본 브라더스’ 까지 있어, 엄청난 책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매달 파산 위기를 맞는 이들이 적지 않은 형편이다. 책에 대한 이 지독한 사랑은 가히 감동적이라 할 만 한데, 문제는 책이 쌓일수록 공간이 날로 좁아질 뿐 아니라 사재기(?)를 하다 보면 개중에는 같은 책을 두번, 세번 다시 사는 비극(?)도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몇 가지 명분을 내세워 나는 늘 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능하면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주장하다가 ‘소장학자’에게 싸늘한 눈총을 맞곤 한다. 솔직히 그 논리는 책을 사는데 게을러 남의 책을 내 것처럼 여기는 나의 못된 습속을 입담으로 얼버무릴 때 쓰는 수법이긴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책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소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훈련은 정말 필요하다. 사실 모든 물건이 그렇지 않을까. 무엇이든 일단 소유하면 영원히 나의 것이라 여기는 ‘해병대식’ 근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행을 자초하는가? 연암은 말한다. “군자는 글로써 벼를 모으고, 벼를 가지고 어짊을 보태나니, 그대가 만약 어짊을 구한다면 천 상자에 가득한 책을 벼들에게 주어 함께 삶아 없어지게 함이 옳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 책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야심찬(!) 계획을 하나 추진하고 있다. 자료실을 마련해 모든 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공간문제도 해결하고 책을 중복해서 사는 비용도 줄일 뿐 아니라, 정말 그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책공동체! 그렇게 된다면 ‘책으로써 벼를 모으고 벼으로써 지혜를 보태는’ 지식공동체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터이므로. ●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통권 제297호 | 2001년 3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흥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이권우
기자	박천홍 김정은 최갑수 강성민
사진	김경록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허영인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편집 732 - 1433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덕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